사경,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된다

문화재청 지정예고… 보유자 김경호 원장 인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경(寫經)’은 불교 경전을 옮겨 적어 널리 전하기 위해 이뤄진 기술이었다.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사경은 공덕을 쌓는 수행이 됐다. 수행이자 예술인 ‘사경’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불경을 쓰는 기술을 가진 장인인 ‘사경장(寫經匠)’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연구원장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사경장’은 불경(佛經)을 쓰는 사경(寫經) 기술을 가진 장인을 의미한다.

사경 제작은 크게 필사(筆寫), 변상도(變相圖) 제작, 표지 장엄 세 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금가루 발색 △아교 만들기 △종이의 표면 처리와 마름질 △잇기 △선긋기 △경 필사 △변상도 그리기 △표지 그리기 △금니 표면처리 등 10여 가지 공정을 거친다.

사경 제작에는 서예 · 한문 · 불교 교리 · 회화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능이 필요하다. 사경이 수행과 예술이 접목된 종합예술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경전의 오자 · 탈자가 없어야 하므로 고도의 집중력과 장기간의 제작 시간이 필요하다.

불경 보급 목적으로 시작
인쇄 발달하며 수행 정착
서예 · 회화 접목 종합예술

김경호 원장 첫 보유자로
고려 전통 금니사경 복원
40년간 사경 전승에 힘써

우리나라 사경의 역사는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시작된다. 당시에는 불경을 세상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경 유물이다.



이후 8세기 중엽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스스로 공덕(功德)을 쌓는 수행으로 변화했고,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며 사경은 전성기를 맞았다. 실제 〈고려사(高麗史)〉 등에 따르면 국가에서 사경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기관을 운영하였고, 당시 사경은 국가 최고의 역량을 동원한 당대 문화의 집합체였다.

특히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국보 제235호)’ 등 금자(金字) · 은자(銀字) 형식의 사경이 많이 제작되었고, 충렬왕 대에 중국에 수백 명의 사경승(寫經僧)을 파견하는 등 대외적으로 고려 사경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다.

조선 시대에는 숭유억불(崇儒抑佛)의 기조가 유지되면서 쇠퇴하였으나, 일부 왕실과 사찰에 의해서 명맥은 유지됐다.

첫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경호 원장은 지난 40여 년간 사경 작업에 매달려온 장인이다. 1997년 조계종에서 개최한 ‘제1회 불교사경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2010년 ‘대한민국 전통사경기능전승자’로 선정됐다.

김 원장은 오랜 기간 문헌과 유물을 통해 사경의 재료, 형식, 내용을 연구하고 이를 기술로 승화시켰다. 또한 각종 교육 기관에서 사경 관련 강의를 하고 다년간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서적을 저술하는 등 사경 전승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아울러 전통 사경체(寫經體)를 능숙하게 재현할 뿐만 아니라 변상도 등 그림의 필치가 세밀하고 유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 원장은 “사경장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예고는 700년 간 단절됐던 사경을 복원 · 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첫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찬란한 전통의 사경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을 예고한 ‘사경장’과 보유자로 인정을 예고한 김 원장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검토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호산 스님 선임

감사에 일화 · 원명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에 호산 스님(수국사 주지 · 사진)이 선임됐다. 감사에는 일화(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 원명(조계종 중앙종회의원)스님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3월 27일 제328차 이사회를 열고 신규 임원으로 호산 · 일화 · 원명 스님을 선출했다.

지난 2월 18일자로 사임한 이사 현문 스님의 후임 이사 선출은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아 이월됐다.

이번 이사와 감사 선임은 지난 3월 10일 열린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제116차 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자 범위 내에서 선출하고 추후 중앙종회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이사회는 또 서울캠퍼스 불교대학 내 문화재학과를 신설키로 결의했다.

한편,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과 상임이사 성월 스님이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쾌척했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19 극복 전방위 지원 ‘눈길’

조계종 포교원, 불자의료진 격려
취약계층 지원도 전국서 잇따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전국 불교계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조계종 포교원과 광주불교연합회 전달식, 진안 쌍봉사 자원봉사 현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과 성금 전달은 물론, 각 분야에 심리적 위로를 전하는 활동을 전개해 주목된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홍)은 3월 30일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에 불자 의료진을 위한 의식집과 염주, 약사여래불 호신카드 등을 전달했다. 이번 물품 전달은 교대근무 속에 지친 불자의료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400여명의 병불연 회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홍 스님은 “누구보다 많은 고생을 하는 의료진들이 부처님 가르침과 신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문품을 준비하게 됐다”며 “병든자를 고치는 가르침이 담긴 약사여래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코로나19를 잘 방어해 이른 시간 내에 종결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3월 27일 서울 구로구청 청장실에서 마스크 2만6000장을 전달했다. 위드아시아는 향후 구로구 관내 취약 계층을 위한 밑반찬 전달 등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탈북 청소년 장학금 지급,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도웅, 천태종 사회부장)는 그동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자비나눔 행사를, 일시적으로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나눔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3월 29~30일 6차 전달식을 열고 서울에 위치한 몽골과 네팔, 캄보디아 법당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고급물티슈, 템플스테이 이용권 등 자비물품을 전달하는 등 재한 이주민법당과 북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예방물품을 지원했다.

부산 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정오)도 3월 31일 부산 기장군청 군수실에서 취약계층 및 소외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기장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수석부회장 법안 스님, 부회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오규석 기장군수가 참석했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개문)는 3월 27일 금정구청에서 ‘금정구 관내 한부모 가족들을 위한 한시적 생계비(100세대)’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는 광명사 주지 스님과 신도들의 자리이타 정신에 깊이 감동 받았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3월 24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광주지역 사찰스님들이 십시일반 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광주시청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며, 향후 코로나19 극복과 어려움 겪는 사회시설에 지원된다. 전달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부회장 도성 스님, 운영위원 소운 스님, 해청 스님을 비롯해 이용섭 시장, 한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와 남구청 불자회(회장 박귀환)는 이어 3월 26일 남구청(청장 김병래)을 방문해 코로나19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 광주 교정청 교정연합회 수석부회장)도 3월 18일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성금 500만원을 전달했으며, 칠성사(주지 영명)도 3월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성금 525만 3000원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와 섬김봉사단(단장 양행금)은 3월 29일 필터교체용 면마스크 제작 자원봉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성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주식회사 세원종합관리(회장 정화찬)는 3월30일 불교계 감염예방을 위한 살균소독수 3톤 분량을 지원했으며, 화성 용주사는 코로나 극복기금 1000만원을, 법보신문사와 일일시호일이 400만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 송지희 기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전 광주전남지사장

종평위, 총선 앞두고 종교평화 캠페인

정교분리 · 차별금지 강조

4.15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가 종교평화 캠페인에 돌입했다. 선거 과정에서 종교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정교분리 및 차별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종평위는 최근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질 총선과 관련해 종교평화와 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공문을 주요정당에 발송했다”며 “종교평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교구본사와 주요사찰 등에 배포해 신도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에 발송한 공문에는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종교간 갈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포스터에는 선거를 넘어선 사회화합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는 문구를 담았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